

(밑줄 그은 경전 구절과 말씀을 읽고 아래 각 질문에 대하여 여러분의 의견을 적는다) 문을 여셨다.

고린도전서 15장. 우리의 충실함을 통하여, 그리고 속죄의 권능에 의해 우리는 영광의 세 왕국 가운데서 하나를 상속받을 수 있다. (30~35분)

노트에 사망이라는 단어를 적는다. 다음과 같이 질문한다.

- 여러분이 사망에 관하여 가장 염려하는 것은 무엇인가?
- 세상을 떠난 사람으로 여러분에게 가장 가까웠던 사람은 누구인가?
- 어떤 면에서 이 사랑하는 사람의 사망이 여러분에게 고통스러웠는가?
- 사랑하는 사람이 세상을 떠났다는 고통 또는 "쓰는 것"을 여러분은 어떻게 극복하였는가?

고린도전서 15장 1~4절을 읽고 또 소망의 메시지를 찾아본다. 바울이 고린도의 성도들을 가르치고 있었다. 그들 중에는 부활에 대한 믿음을 거부하였던 자들도 있었다. 그는 그들의 불신앙을 자신의 간증으로 바로잡으려 노력하였다.

고린도전서 15:5~11; 15:12~26; 15:35~42; 15:42~50 부활에 대한 깊은 의미를 찾아보면서 성구를 읽는다. 다음과 같이 질문한다.

- 예수님이 부활하였다는 증거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가?
- 부활이 물리친 "맨 나중 ... 원수"는 무엇인가?
- 부활이 가져다주는 육신의 종류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가?

조셉 필딩 스미스 장로의 다음 말씀을 읽는다.

"부활하면 여러 종류의 몸이 있게 됩니다. 부활한 몸이 전부 똑같은 것은 아닙니다. 인간이 받게 되는 몸은 내세에서 그가 차지하는 위치에 따라 결정됩니다. 해의 영광에 속한 몸과 달의 영광에 속한 몸과 별의 영광에 속한 몸이 있게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몸들은, 현재 인간의 몸이 ... 구별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분명히 다를 것입니다. ... 어떤 사람은 승영과 영원한 증식의 모든 권능을 지닌 해의 영광에 속한 몸을 갖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몸은 요한이 묘사한 바와 같이 구주처럼 해같이 빛날 것입니다. 달의 왕국에 들어갈 자들은 달의 영광에 속한 몸을 갖게 되어 해같이 빛나지는 않지만 별의 영광을 받는 자들의 몸보다는 더 빛날 것입니다" (구원의 교리, 2:253~254)

비록 모든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부활할 것이지만, 사망은 여전히 쓰는 것을 가지고 있을 수도 있다. **고린도전서 15장 55~56절에서** "사망이 쓰는 것"을 찾아본다. 다음과 같이 질문한다. 어떻게 죄가 쓰는 것이 될 수 있는가?

더블류 킴블 회장이 전한 경고의 말씀을 읽는다.

"바울은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사망이 쓰는 것은 죄요' 이 말은 만약 인간이 죽으면 그가 지은 죄로 인해 규정된 죄의 대가를 치러야 하며 다가올 세상에서 높은 영광을 받지 못함을 뜻합니다" (Conference Report, 1978년 10월, 109쪽. 또한 성도의 빛, 1979년 4월호, 110쪽; 교리와 성약 42:44~48 참조)

다음과 같이 질문한다. 사망이 쓰는 것을 피하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만 하는가?

고든 비 힝클리 회장의 다음 간증을 읽는다.

"사망의 고통은 영생의 평안 속에서 사라질 것입니다. ... 죽음의 차가운 손이 닿을 때마다 그 시간의 슬픔과 암흑을 꿰고 견줄 수 없는 영원한 권능으로 죽음을 이기신 하나님의 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에 찬 모습이 빛을 발합니다. ... 몸에서 영이 떠나 밤의 어두운 그림자가 우리를 덮을 때 그분은 우리의 평안, 곧 유일하게 참된 평안이 되십니다." (Conference Report, 1996년 4월, 92쪽 참조; 또한 성도의 빛, 1996년 7월호, 67쪽)

예수님은 합당한 사람들을 위하여 해의 왕국으로 들어가는

고린도전서 15:20~22(성구 익히기) 모든 이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를 통하여 부활할 것이다. (10~15분)

고린도전서 15장 20~22절을 읽는다.

다음과 같이 질문한다.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라는 표현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조셉 에프 스미스 회장의 다음 말씀을 읽는다.

"하나님의 형상에 따라 태어난 모든 생명체는 ...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에 의하여 죽음으로부터 부활할 것입니다. 우리가 잘하고 있거나 아프거나, 우리가 지적이거나 무식하거나, 또는 우리가 속박되어 있는 사람이거나 노예이거나 자유인이거나 그런 것들은 중요하지 않으며, 모든 사람들은 죽은 자로부터 일어서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 사망", 브라이언 에이치 스튜이 편, 월포드 우드럽, 그의 두 보좌, 십이사도 및 다른 사람들의 설교 모음집, 전 5권 [1987~1992년], 4:224~225)

죽은 자의 부활을 가져올 수 있는 예수님의 권능에 대해 생각한다. (에베소서 1:17, 19~20; 베드로전서 1:20~21 참조)

고린도전서 15:29(성구 익히기) 우리는 이미 죽은 사람들을 위해 침례를 받음으로써 그들이 구원을 얻도록 도움을 줄 수 있다. (10~15분)

다른 교회에서는 행하지 않지만 성경에 그 이름이 분명히 나와 있는 교회 의식의 이름을 생각해 본다. **고린도전서 15장 29절을 읽고** 답을 찾아본다. 다음과 같이 질문한다.

- 이 구절은 바울의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에 관하여 무엇을 말해주는가?
- 우리는 왜 죽은 자를 위한 침례를 행하는가?

마지막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보면서 다음 성구를 읽는다. **요한복음 3:5; 베드로전서 3:18~20; 4:6; 교리와 성약 124:28~31.** 성구에 대해 토론을 한 후, 다음 해설을 나눌 수도 있다. 선지자 조셉 스미스는 이렇게 말하였다.

"침례를 받아 하나님의 왕국에 속한 자는 누구든지 죽은 사람을 위한 침례를 받을 수 있으며, 죽은 자들을 위해 대리 의식을 행한 친구들이 그 복음의 율법에 순종하는 즉시, 주님은 그곳에서 그들을 자유롭게 해주십니다." (선지자 조셉 스미스의 가르침, 365쪽)

조셉 필딩 스미스 장로는 이렇게 말하였다.

"초대 기독교에서는 죽은 자를 위한 구원의 교리가 알려져 있었으며, 주후 379년 카르타고 공의회에서 죽은 자를 위한 의식과 '성스러운 교통'을 더 이상 하지 못하게 금하기까지 죽은 자를 위한 침례 의식은 어느 정도 계속되어 있었습니다." (구원의 교리, 2:145)

다음과 같이 질문한다.

- 이러한 신성한 침례는 어디에서 수행되는가?
- 우리가 성전에 가기에 합당하게 되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만 하는가?
- 우리는 자신을 어떻게 준비할 수 있는가?
- 영의 세계에 있는 이들은 그들을 위한 대리 침례가 유효하게 되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만 하는가?

죽은 자를 위한 침례를 받기 위해서 성전에 다녀온 학생이 있다면, 그 경험에 대한 느낌을 나눈다.